



양현종



KIA 타이거즈 결산

<3>선발진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고전 이유를 꼽자면 마운드가 든든할 것이라 믿었던 헥터, 팻턴, 임기영 등이 흔들리면서 KIA는 힘겨운 싸움을 펼쳤다. 사실 이들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KIA의 11번째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었기 때문이다. 양현종-헥터-팻턴-임기영으로 이어지는 4선발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양현종만 제 몫을 해줬을 뿐 나머지 투수들은 아쉬움을 진하게 남긴 한 해를 보냈다.

기존 멤버 헥터·팻턴·임기영 부진에 발목

윤석민 등 도전에도 5선발 구축 불안정

‘만형’ 임창용·‘커브장작’ 한승혁 위안

◆기존 선발진 붕괴

양현종은 이번 시즌도 뜨거운 활약을 펼쳤다. 평균자책점 4.15로 토종 투수들 중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13승(11패)에 그치는 바람에 2년 연속 20승에 도달에 실패했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17차례나 달성, 타선의 도움만 따라왔다면 충분히 17승도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화 이상 능력도 발군이었다. 포스트시즌과 야시안게임을 포함하면 이미 200이닝을 지켰다.

그러나 다른 선발진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다승왕이자 승률왕 출신인 헥터는 11승 10패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쳤다. 그의 부진 때문에 여러 차례 조기강판을 당해 소화 이닝은 174이닝에 그쳤다.

2016시즌과 2017시즌에 200이닝을 넘긴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래도 꾸준히 선발로테이션을 버틸만한 기량을 유지한 것은 잘 일이다.

팻턴과 임기영은 여러 차례 베타 끝에 내물렸다. 선발에서 거둔 부진에 이들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전전긍긍했다.

팻턴의 성적은 6승 7패 2홀드 평균자책점 6.26이다. 임기영도 비슷하다. 8승9패 2홀드 평균자책점 6.26이다.

◆5선발 구축 실패

KIA의 위기는 5선발 구축 실패로 이어진다. 5번째 선발에 도전한 선수들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선발 가능성을 보였던 이민우, 정용운과 오랜만에 돌아온 윤석민이 선발 자리를 노렸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가장 먼저 5선발로 낙점된 이민우는 3월 28일 삼성전 6이닝 4실점, 4월 3일 SK전 1이닝 6실점으로 패전투수에 이름을 올렸고, 정용운은 3월 29일 삼성전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4월 4일 SK전 3이닝 5실점, 4월 11일 한화전 2이닝 2실점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다.

또 윤석민도 선발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3경기 연속 패전투수에 등록, 불펜으로 보직을 전환했다.

◆새로운 선발진 구성

시즌 중반이 흘러도 기존 선발진의 부진과 젊은 피 수혈에 실패로 위기에 빠진 KIA는 승부수를 띄웠다. 임창용을 선발로 깜짝 발탁한 것이다.

임창용의 기용은 성공적이었다. 불펜에서 2점대 방어율을 자랑하던 임창용은 7월 20일 kt전에서 11년 만에 선발로

등판했다. 이날 4.1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인 그는 8월 1일 롯데전 시즌 첫 선발승을 거두더니, 9월 6일 넥센전에서 4전34일만에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했다. 또 9월 29일 한화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뒀다.

임창용에 이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으려면 한승혁이다.

커브를 장착한 한승혁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강속구와 함께 선전을 펼쳤고, 그 결과 선발 투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즌 중반 잠시 주춤했던 바람에 1군 엔트리 말소의 아픔을 겪었으나 선발 공백이 컸던 9월 복귀해 다시 호투를 펼쳤다.

한승혁의 특징은 kt전에 강하다는 점이다. 상대전적이 강팀에게 강하고 약팀에게 약한 KIA였지만 한승혁 덕분에 kt전 만큼은 많은 승리를 쌓을 수 있었다.

그는 kt전 5경기에 출전해 전승을 거두며 마법사처럼 좋은 면모를 드러냈다. kt전 평균자책점은 2.33이다. 5위 싸움이 치열한 10월 10일 한화전에서는 5.1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둬내기도 했다.

한승혁과 임창용이 있지만 KIA가 우승 전까지는 구축한 것은 아니었다. 가까스로 4선발을 채웠을 뿐이다. 이들의 선전 덕분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전반기 벌어진 4위와의 격차 차를 좁히는 것이 한계였다.

한경기자 hankk42@naver.com

류현진, 한국인 최초 ‘꿈의 무대’에 선다

내일 월드시리즈 2차전 선발 출격...프라이스와 맞대결



거뒀기 때문에 안방에서 열리는 3차전 선발이 전망됐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개의치 않았다. 류현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징크스를 털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류현진은 약 5년 전 보스턴과 상대해봤다.

2013년 8월 25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경기에 선발등판해 1회에만 4점을 내주는 등 5이닝 4실점 투구로 패전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보스턴 타자에게도 낯선 투수다. 류현진의 투구는 더 노련해졌고 주무기인 체인지업과 투심패스트볼 등은 보스턴의 강타자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구종이다.

보스턴은 2차전 선발투수로 데이빗 프라이스를 예고했다. 프라이스는 올해 30경기에 선발등판해 16승 7패에 평균자책점 3.58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포스트시즌에서는 3경기에 선발로 나와 1승 1패 평균자책점 5.11을 기록했다. 뉴스

류현진(31·LA 다저스)이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등판한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23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클레이튼 커쇼와 류현진이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 1, 2차전에 선발등판한다. 3차전 선발은 워커 블러가 나간다”라고 밝혔다.

류현진은 25일 오전 9시 월드시리즈 2차전에 나선다.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서게 됐다.

당초 류현진은 3차전 선발이 유력했으나 올 시즌 원정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도 원정 2경기에 등판해 모두 부진한 성적을



전국체전 전남 종합10위 쾌거...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전남도체육회,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전남도체육회가 최근 끝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10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2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 18일 폐막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만 2천708점을 획득(금 50·은메달 46·동메달 76개), 종합10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90회), 2010년(91회) 2년 연속 종합10위를 차지한데 이어 8년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좋은 성적을 낸 원동력으로 고교부의 특점 상상을 꼽았다.

지난해 체전에서 1만523점으로 14위에 그쳤던 고교부는 올해 체전에서는 1만1천 837점으로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38개 종목 525명이 출전, 금 21개, 은 25,

동메달 26개 등 모두 72개(시범 4개 포함)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점수가 높은 단체종목에서는 여고부 펜싱 사브르(전남기술고)와 소프트볼(강남여고)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는 등 선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전남도체육회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동반 성장 전략, 각급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행정·재정 지원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전남 학교체육의 이번 성적은 학생선수들의 꿈과 노력의 결실이지만 감독과 지도자들의 공로, 교육청 등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체육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석기자 backdoor20@nate.com



배드민턴 단체인 금메달을 획득한 전남기술고학교.

오심에 멍든 광주FC, 올해도 눈물

한국축구협 상벌위, 김영수 주심 5경기 배정정지

광주FC가 올해도 뼈아픈 오심에 눈물을 삼켰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3라운드 광주FC와 수원FC의 경기에서 후반 18분 발생한 김민규(광주FC)의 퇴장은 오심으로 23일 판정했다.

상벌위는 김민규의 다이렉트 퇴장 징계는 감면키로 하고, 레드카드를 꺼내든 김영수 주심을 5경기 배정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광주는 수원전 경기에서 납득할 수 없는 퇴장으로 인해 0-2로 패배했다. 0-0으로 팽팽한 후반 18분 김민규가 백 헤딩한 것이 수원의 수비수를 공격했다는 판정, 옐로카드 없이 곧바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10명으로 싸우게 된 광주는 수적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해 2점을 내줬고 승점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써 5위를 달리던 광주는 단숨에 7위로 추락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 광주의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린 경기였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 승점 확보 실패로 광주는 사실상 K리그1 진출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했음에도 판정을 바꾸지 않고 오심을 고집한 것도 한 몫 한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VAR이지만 장면을 되돌려 봤을 뿐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비디오 판독이었다.

한편, 광주가 심판 오심을 겪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부리그 잔류가 걸린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의 핸드블 파울에도 심판은 VAR도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바람에 승점 3점 확보에 실패했다.

한경기자 hankk42@naver.com